편집자의 말

천황 · 자유 · 질서

박진우 _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쇼와 천황 사후 '헤이세이 2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절대주의'나 '군국주의'와 결부된 천황제의 이미지는 일본인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천황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부(負)의 유산'과는 동떨어진 거리에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천황제는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존속하면서 국민통합의 구심으로 기능해 갈 것일까. 이 때 상징천황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혹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3·11 이후 상처받은 재해민을 '치유'하는 천황과 황후의 온화한 모습에서 천황제의 '성역'은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평화 내셔널리즘'을 치장하면서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서 또 다른 '신화'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적어도 일본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한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1 사태와 '치유'하는 천황의 '권위'

헤이세이가 시작되는 1989년 이후 일본 국민의 상징천황제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매년 천황제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갖가지 여론조사에서 무관심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서는 다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천황·천황제에 대한 관심이나 자발적인 지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신년 초두와 천황 탄생일에 황거를 찾아오는 일반 하례자의 수를 보면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궁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헤이세이 이후 신년 하례자 수의 추이를 보면 1993년 황태자 결혼을 계기로 1994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피크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6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1년 아이코 공주 탄생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8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회복하고 있다. 이같이 2000년대 이후 하례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겸허하고 온화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천황과 황후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사코비의 '적응장애 스트레스'와 황태자의 '인격 부정' 발언에 대한 동정적인 관심, 2001년 아이코 공주 탄생 이후 '여성 천황'의 찬부를 둘러싼 찬반 논의, 2006년 히사히토 왕자의 탄생 등 황실을 둘러싼 갖가지 요인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상징천황제는 '황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천황을 비롯한 황족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천황과 황실의 안태를 염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황실도 나름대로 존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연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3·11은 실로 상징천황제가 그 안정적인 존속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때 도래한 천우(天佑)가 아닐까.

3·11의 괴멸적인 타격에 직면하여 헤이세이 천황이 보여준 가장 '권위' 있는 대응은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비디오 메시지였다. 천황은 3·11에 직면하여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물론 그 배후에 궁내청 관리들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천황의 연출은 과연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일본판(2011. 3.

30)에서는 "1년마다 교체되는 수상보다도 천황의 말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 진재에서도 황실이 국가 아이덴티티의 구심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상징천황제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들 사이에 그 존재감을 소프트하게 어필하면서 '부흥'을 위해 '국민통합'을 호소하는 인상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헤이세이 천황의 비디오 메시지를 접하고 1945년 8월 15일 '종전'을 알리는 쇼와 천황의 '옥음방송'을 상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패전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권위', 그것이 최대한으로 발휘된 것이 텔레비전이 없는 시대, 라디오를 이용한 '옥음방송'이었다. 그리고 전후 미증유의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천황의 '권위'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재차 그 힘을 발휘한 것이다.

카메라를 향해 천황은 "앞으로 이재민들이 겪는 고난의 나날을 우리 모두가 갖가지 형태로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체 여러분, 여러 외국에서 원호를 위해 일본으로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천황의 메시지는 특히 자위대원들의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1] 실로 '헤이세이의 옥음방송'이었던 것이다.

천황의 비디오 메시지의 방송은 5분 56초. "긴급뉴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를 우선하도록"이라는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천황의 의향도 덧붙여서 전해졌다. 3·11에 대한 황실의 대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나스(那須) 별장의 직원용 목욕탕을 개방하고 이재민들이 사용할 목욕용품 보자기를 황족들이 정리했으며 황거에서도 자발적으로 정전(停電)을 실시했다고 한다. 궁내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상징천황제가 국민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위령과 동시에 자연

1 「震災でわかった, 象徴天皇制の意義と危機」, 『週刊アエラ』, 2011. 10. 3.

재해의 이재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양 폐하가 얻은 하나의 답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증유의 사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시겠지요.” 헤이세이의 천황제는 3·11이라는 미증유의 자연재해를 계기로 스스로 그 존재 의미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국민들 사이에 한층 다가선 것이다.

3·11에 즈음해서 천황의 또 하나의 ‘권위’ 있는 행동은 재해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재민을 ‘치유’하는 ‘인자’한 군주상을 연출한 것이었다. 천황이 처음으로 이재민과 접한 것은 3월 30일, 약 30명이 피신한 도쿄부도칸(東京武道館)을 방문했을 때였다. 이와키(いわき) 시에서 온 남성(80세)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면서 말한다. “어린 손자도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걱정이 돼서 가족들과 피난해 왔습니다. 미치코 님이 상냥한 미소로 말씀을 걸어주시니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2] 또 다른 이재민은 “뉴스에서도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줄어들어 불안했습니다. 양 폐하가 찾아와 주셔서 아직 사회에서 잊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받은 ‘백성’을 쓰다듬고 눈물의 감동을 주는 역할을 천황과 황후 이외에 그 누가 가능할까.

이후 재해지를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는 천황과 황후의 모습은 매스컴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간다. 천황·황후가 3·11사태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미야기(宮城) 현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의 고지대에 있는 소학교 교정에 헬기로 도착한 것은 4월 27일의 일이다. 두 사람이 깊숙이 머리를 숙여 묵도하는 장면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되풀이해서 방송되면서 국민들을 감동케 했다. 미야기 현 방문을 시작으로 천황과 황후의 이재민을 ‘치유’하는 여행은 계속되었다. 5월 6일에는 이와테(岩手) 현의 가마이시(釜石) 시와 미야코(宮古) 시, 11일에는 후쿠시마(福島) 현의 후쿠시마 시와 소마(相馬) 시를 위로 방문했다. 당시의 모습을 어느 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약 620명이 피난한 후쿠시마 시 아즈마종합체육

2 『週刊アエラ』, 2011. 4. 11.

관에서는 천황 폐하와 황후께서 두 갈래로 나뉘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주 대하여 진재 이후 2개월간의 피난 생활의 고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 헬기로 소마 시로 향하는 도중에 진재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이 되자 양 폐하는 기내에서 앉은 채로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양 폐하는 4월부터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의 순으로 재해지역을 방문하셨다. 금후는 부흥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각 현으로의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3]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천황·황후의 '인자'한 모습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천황·황후는 이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백성'을 위한 천황의 '기도'는 고대에도 있었고 메이지 시대에도 쇼와 시대에도 있었지만, 서민들 사이에 섞여 같은 눈높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때마침 소비세다, 신당 창당이다 하여 사분오열하는 정치판을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 '자비' 넘치는 '인자'한 천황의 모습은 분명 정치 지도자들과는 다른 각별한 존재로 비쳤음에 틀림없다. 여기서도 천황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재해지를 방문하고 황급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려할 때 갑자기 뒤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벌써 가버리는 거에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총리의 표정은 정말 보기에 민망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천황·황후에게 터뜨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천황과 총리의 격차는 한없이 크다. 더구나 천황은 결코 총리와 같이 '형식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헤이세이 천황은 즉위 후 일관해서 '태평양전쟁'에서의 '전몰자'에 대한 위령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것을 공무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전후 50년'을 앞둔 1994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이오지마(硫黄島), 지치

3 『スポニチ』, 2011. 5. 11.

지마(父島), 하하지마(母島)를, 1995년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키나와를 각각 위령 방문하고 2005년에는 사이판까지 '위령 여행'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과거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령 여행'과 동시에 재해지를 방문하는 횟수도 점차 증가했다. 헤이세이 이후 천황과 황후가 처음으로 재해지를 방문한 것은 1991년 6월 나가사키(長崎) 현 운젠 · 후겐다케(雲仙 · 普賢岳)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하여 43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나왔을 때였다. 그 1개월 후 천황과 황후는 현지를 방문했다. 당시 궁내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양 폐하는 피난소에서 구두를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이재민과 같은 눈높이로 대화하셨습니다. 지금이야 헤이세이 천황·황후의 상징적인 스타일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4]

이후 헤이세이의 황실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 존재감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켜 왔다. 1995년 1월에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했다. 천황, 황후는 그 2주 후에 고베를 방문했다. 재해를 입은 여성이 황후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자 황후는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이때 황후는 많은 희생자를 낸 재해 지역에 수선화를 바쳤고 이후 고베에서 수선화는 부흥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천황과 황후는 1999년 홋카이도난세이오키(北海道南西沖) 지진, 2004년의 니가타현주에쓰(新潟県中越) 지진, 2005년의 후쿠오카현세이호오키(福岡県西方沖) 지진, 2007년의 니가타현주에쓰오키(新潟県中越沖) 지진의 재해지를 방문하면서 부흥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실로 천황의 '본업'이 전쟁과 관련된 '위령'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로'로 이동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천황제는 부드러운 '평화 내셔널리즘'의 구심으로 연착륙하

4 『週刊朝日』, 2011. 5. 27.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 천황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갖가지 '부의 유산'은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지고, 쓰다 소기치(津田左右吉)와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가 말했듯이 원래부터 황실은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전통'이 '상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가오는 '헤이세이의 X데이'에는 또 어떤 '신화'가 만들어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은 대목이다. 천황의 '평화 내셔널리즘'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은 지금의 황태자가 천황이 된 후에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황실의 존속을 위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평화 내셔널리즘'의 이면에 가려진 부분이다. 2013년 4월 28일 '주권회복의 날' 행사에서 벌어진 '만세삼창'의 해프닝은 그 가려진 부분의 꺼림칙한 단면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주의적인 질서를 재편하고자 할 때, 국민 개개인의 자유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구속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절대천황제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더라도, 천황제적인 질서 그 자체는 개개인의 자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평화와 민주주의로 치장한 상징천황제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야스마루는 이러한 천황제적인 질서와 개인의 자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일반적으로 현대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각종 단체와 사회나 개인은 자유롭게 욕망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자유도 실은 국가에 귀속하여 그 질서 속에 안주하는 것을 교환조건으로 한 자유이며, 국가는 또한 이 자유를 매개로 국민의식의 심부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활력을 조달하여 통합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나 갖가지 집단과 국가는 상호 간에 서로 요구하고 보장함으로써 병존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일본인도 이러한 틀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천황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금기적인 차원을 집약하고 대표하는 질서

의 요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에 달라붙듯이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외관과 환상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깊숙이 민족국가 일본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희구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굴욕의 기념비다."[5]

'천황·자유·질서'를 기획 주제로 한 이번 특집의 권두언으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문장은 없을 것이다.

천황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시점

『일본비평』 9호가 '천황·자유·질서'를 주제로 특집을 기획한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11 이후 '일본 부흥'의 구호 속에서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인자'한 천황의 '부드러운 통합'이라는 측면은 권력이 지향하는 '질서'에 포섭되어 갈 때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헤이세이의 천황제가 평화주의와 '열린 황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황 심벌은 여전히 현대 일본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정신적인 내면세계에서 규율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3·11 사태는 '질서'와 '자유'에 대해 '천황'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기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사회에서의 '질서', '자유'와 '천황' 심벌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젠더, 미디어, 정치, 종교, 철학 분야에서 다섯 편의 논문을 통해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특집과 관련하여 일본의 문예비평가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의 특별기고 한편

5 安丸良夫,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書店, 1922, 311쪽.

을 실었다.

권숙인의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마사코 황태자비의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일본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가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젠더 문제에서의 접근은 천황제의 강고한 남성중심주의가 한 개인으로서의 마사코에게 얼마나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황실의 위기'가 가지는 내면적인 모순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천황과 황족의 '자연적 신체'(body natural)와 '정치적 신체'(body political), 그리고 천황제라는 시스템의 '제도적 신체'(institutional body)를 통한 분석, 클리포드 기어츠(Cilfford Geertz)의 '극장국가' 개념을 응용한 황실의 '극장성'에 대한 분석 등은 인류학자다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선한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강태웅의 「영화 속에 표현된 천황, 그리고 터부」는 일본사 연구자로서 미디어 분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천황, 황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기록 필름이 아니라 영화 카메라에 찍힌 천황 이미지이며 그 피사체가 실제 천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즉 일반인에 의해 재현된 가상의 천황에 대한 표현에 문제의 관심을 가지고 극영화 속에서 천황 터부를 어떻게 피하면서 재현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전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천황·천황제에 관한한 엄연히 터부가 기능하고 있음을 영화 속의 천황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천황 역을 맡은 배우는 촬영장이나 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천황 분장을 하면 안 되며 사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궁내청의 지시에 규제받고 있다는 사실은 천황 터부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천황 터부는 현대 일본사회에서도 암묵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순애의 「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는 전후 일본의 황실외교의 양상과

그 정치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 있다. 상징천황제는 일본국 헌법하에서 정치적인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황실외교에 대해서도 궁내청은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친선을 위한 ‘외국 교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본정부의 의사나 의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성’을 간과 할 수 없다. 여기서는 특히 천황, 황족의 외국 공식방문은 각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의 대미 안보외교, 1980년대 제3세계로의 자원외교, 1990년대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등에 황실외교가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황실외교로 천황, 황족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방문은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천황의 방한 문제는 한일 간에 내셔널리즘의 충돌로 인하여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찬수의 「영혼의 정치학: 천황제와 신종교의 접점」에서는 일본 신도에 대하여 인간의 위로 받지 못한 원령을 조상신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제사를 통해 조상신의 가호를 기원함으로써 현실의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민중적 신앙이었다고 정의한다. 이렇게 순수한 민간신앙으로서의 신도가 어떻게 해서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국가신도에 포섭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여기서는 ‘신도의 국가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영혼의 정치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일본 신종교가 죽은 이의 혼령과 관계를 맺는 민중적인 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혼의 정치학’이 신종교의 탄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도 이 논문의 중요한 논점이다. 신종교의 대부분이 국가신도에 저항하면서 주체적인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자(死者)의 위령 및 조상신 숭배의 전통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천황제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임영강의 「국가와 천황: 니시다 기타로의 정치철학」은 국가와 천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니시다의 정치철학을 논하고 이를 통해서 근대 일본의 철학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흔히 니시다의 국가론은 민족주

의, 국가 존재의 이유, 국체, 대동아공영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것은 천황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양자의 관계를 통해서 니시다 철학의 기본 축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니시다는 국가와 천황을 논할 때 정치철학에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든 천황이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니시다의 정치철학이란 자유에서 선(善), 또는 도덕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권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곧 정치와 철학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니시다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오쓰카 에이지의 특별기고 「애국소년론: '일본적 성장소설' 천황 서사의 구조」는 천황과 문학의 문제를 오에 겐자부로의 1961년 작품 「세븐틴」과 「정치소년 죽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서두부터 『고사기』가 '영웅 탄생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친 살해'를 기피한 이야기의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천황을 둘러싼 문학을 읽어내기 위한 문제제기로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친 살해'의 부재라는 문제를 '전후' 내지 '현재'의 문맥에 안이하게 끼워 맞추어 "패전으로 인해 '강한 아버지'라는 주체를 빼앗긴 일본"이라는 상투적인 도식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하고, 이른바 '천황 살해 이야기의 불성립'이라는 문제를 일본이라는 지역의 문화사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해독하는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고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약해보자는 것이 이 에세이의 전략이다.

본 특집과 관련하여 박진우의 특집서평 「야스마루 사상사 다시 읽기」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중사상사 연구자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의 사상사에 관한 최근의 논문집 두 권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두 권의 논문집이 간행되기까지의 경위와 야스마루 사상사의 궤적, 그리고 야스마루 사상사의 이론과 방법 등을 소개하고 끝으로 야스마루의 천황상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전후역사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야스마루 사상사가 제기하는 새로운 지(知)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 편의 연구노트와 두 편의 연구 논단을 실어 기획 특집에 무게를 더했다. 연구노트와 연구논단은 기획특집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메이지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전쟁화, 메이지유신 과정에서의 조정과 공가의 역할을 각각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천황, 또는 천황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천황·자유·질서'라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